

**키워드로 다시 살펴보는
 임금교섭과 파업의 목표**



#보리밥

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한 말. “교육공무직에게 그동안 쌀밥은 못 줬어도 보리밥은 줬다고 생각한다.” 말이야 방구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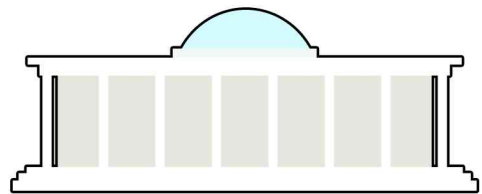


#22,000원

교섭에서 최종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. 말로는 격차 해소 운운하면서, 올해 공무원 인상률에 눈곱만큼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을 내밀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? 공공기관 중 임금 격차가 제일 심한 곳이 학교라는 건 알고 하는 소리?

#10만명

2020년 11월, ‘교육공무직 법제화 10만명 국민동의청원’ 달성 완료! 그러나 1년동안 국회에 ‘계류’ 중. 10만명의 동의를 우습냐. 국회는 교육복지와 행정서비스 강화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라!



#교육공무직_위상_높이자

이제 학교는 돌봄, 급식 등 수업 이외의 교육복지까지 담당하는 공간! 이러한 학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사회적 위상 또한 높여 나가자!



#K양극화

K팝, K방역, K푸드 등 한국을 치켜세우는 말들이 많지만, 사실 **K양극화**같은 어두운 면도 있다는 사실... 한국은 불평등/양극화가 심하기로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... **K평등, K복지**를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!

#공무직위원회

2019년 3월 파업으로 만들어낸 공무직위원회! 현재 인사관리 가이드라인, 경력인정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개선안이 논의중인데, **기재부와 교육청들이 앞다투어 반대반대반대**.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올해가 기회! 우리 손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, **성과도 우리 손으로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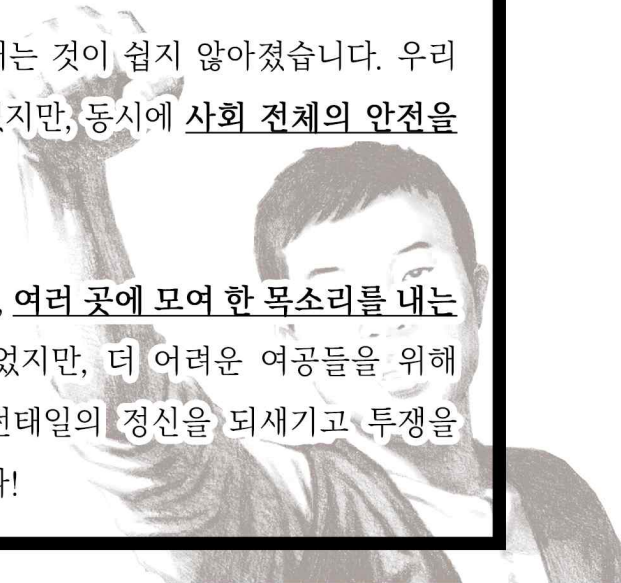
전태일과 함께하는 1020 총파업의 의미



파업은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위력적인 수단입니다. 이 파업을 위력적으로 사회와 교육청에 드러낼 수 있는 **최선의 수단은 한 곳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**입니다.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.

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한 곳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. 우리 민주노총에게는 과도한 방역 규제를 비판해야 할 책임도 있지만, 동시에 **사회 전체의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책임도** 있습니다.

그래서 올해는 한 곳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최선책 보다는, **여러 곳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**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. 전태일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, 더 어려운 여공들을 위해 차비를 아껴 풀빵을 선물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러한 전태일의 정신을 되새기고 투쟁을 결의하는 민주노총, 교육공무직본부, 10.20 총파업이 됩시다!



**불평등 양극화
그만!**

학교와 사회의

대전환을 위한 1020총파업

교육공무직제 완성! 교육복지 강화! 양극화·차별 철폐!

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
전국교육공무직본부

